내게도 숨겨진 나의 야심

(이사야 14:1~32)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게도 숨겨진 나의 야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게도 숨겨진 나의 야심'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명성(啓明星)'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벽녘에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보이다가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는 별입니다. 계명성을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시퍼(Lucifer)로 번역하였습니다. 4~5세기 무렵 교부들이 이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17~18절에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 지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계명성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용하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성을 사탄의 상징으로 일컫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나서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기원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절까지는 특이하게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00~15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과 연합하여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만가(輓歌)로서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죽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앗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짧게 이어집니다.

이 전체 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영적인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대비되어서 남은 자로 사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염두에 둠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이 더 뚜렷하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앗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이 짧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의 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 이들이 짧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아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자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남 왕국 유다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대비가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의 열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남은 자와 대비를 이루는 바벨론 유전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명성을 상징으로 삼은 12~15절까지의 예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계명성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야심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게도 숨겨진 나의 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야심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생활에 걱정과 근심이 많고 지치고 무겁고 힘겨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숨겨진 야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겨진 야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클라크(William S. Clark)선교사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삿포로 농림대학의 부총장으로 계셨는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비행장에 환송 나온 제자들에게 '소년들이여, 야심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클라크 선교사님이 '세상적인 야망을 품으라.'는 뜻으로 이러한 말을 하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전후 맥락은 보지 않고 이 문장의 의미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실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야망을 가지라'고 명령형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도 모두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람은 야심덩어리입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남은 자들과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자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그룹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때로부터입니다. 임마누엘이 언급된 때는 예루살렘이 두 적국의 동맹군에 의한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을 믿고 적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신다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실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은 항상 세상을 우선시하여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성전과 번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을 먼저 실감하는 나는 하나님을 먼저 실감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벗어난 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를 실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으며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번제단을 허락해주신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이 번제단을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실감하는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권장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 문제를 먼저 실감하는 것이 당연하며 인간답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묵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야심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먼저 실감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지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이 공백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오감을 통해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여 실감하지 않으면 마음 공백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채우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 압박감은 욕구와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크기로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잡아당겨서 채워야만 한다는 압박감은 24시간 작동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실감하는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여 실감한다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마음의 공백을 이 세상으로 채우려는 욕구는 어마어마한 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채우려는 이 놀라운 야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공백에서 나오는 흡입력에 의해서 삶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모릅

니다. 추구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모든 인생의 활동이 이 흡입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이 흡입력의 원천이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공백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흡입력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진 야심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하루 삶에만 매여 사는 모습을 꿈과 비전이 없는 모습으로 간주합니다. 삶의 진전을 위한 아무 바람이 없이 마치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더 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현재 주어진 것에만 매달리고 있더라도 삶에 필요한 충족감은 채워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추구하지 않는 만큼 더욱 터무니없는 야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였습니다.
계명성은 우리말로는 샛별이고 곧 금성을 의미합니다. 샛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기 직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이사야는 이 샛별의 기능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샛별 자체의 운명에 주목하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반짝이기 시작하는데, 해가 곧 뜨기 때문에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야심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야심은 자라지도 못하고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설령 이 야심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억을 벌고자 했던 사람이 실제로 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족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채워지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이십억을 벌어야겠다고 여깁니다. 결국 또 이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이번에는 삼십억을 벌고자 합니다.
자녀에 대해 갖는 야심도 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서울대만큼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때에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하면 축소된 마음이 일시적으로 가득 찹니다. 포만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축소된 마음을 잡아둘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본래의 하나님 크기대로 확장됩니다. 이제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만으로는 만족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었나 싶을 정도로 계명성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부를 보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덮을 정도로 큰 나무를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야심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자가 엄청났지만 결국 나무가 찍혀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야심을 품었던 자의 결말입니다.

야심은 곧 세상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으며 학력이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에 삶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야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실감하면 마음에는 야심이 생겨납니다. 이 야심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짜로 믿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참 야무진 야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이 평생을 갈증에 허덕이게 합니다. 세상 것을 실감하고 실감한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할 뿐인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갈증에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잠시 수축된 동안 이완되기 직전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마치 샛별이 해가 뜨기 직전에 잠깐 반짝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내 본래의 크기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뤄야겠다고 마음을 붙잡는 상태에서는 수축된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루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크기대로 이완되면서 만족은 사라집니다.

13~14절을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게 실감하는 것과 나쁘게 실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게 실감하는 것은 가지려하고, 나쁘게 실감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실감하는 모든 것들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만 되면 만족할 줄 알았던 마음이 이완되면서 공허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왕의 자리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억을 벌어서도 만족이 안 되면 십억을 벌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는 이미 재산을 더 이상 모을 수 없을 만큼 모았습니다. 더 올라갈 권력도 없고, 더 퍼트릴 명성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소위 말하는 갑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욱 발전하면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왕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성향이 아닙니다. 야심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세상 것으로 채우겠다는 터무니없는 야심을 품은 결과입니다. 계획대로 얻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만족은 찾아야 되겠기에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우월감을 얻으려합니다. 얻어 봐야 참 만족이 없으니 못 얻은 자를 낮은 사람으로 여김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질도 나타나고 신격화도 나타나며 독재정권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모르는 나의 야심이 만들어낸 불행한 결과들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심의 결과로 지옥에서도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만족을 찾으려하면 할수록 이룬 높이만큼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반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다면 그만큼 반동은 적어질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 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개가 와서 헌 데를 핥았으며, 부자가 휴지 대신으로 손을 닦고 버린 빵 조각으로 연명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웠기에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던 부자나, 세리를 무시하며 자신의 선함을 호언장담하던 바리새인들은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심은 숨겨져 있습니다.
돈, 자녀, 건강, 사업 등으로 염려하고 근심걱정을 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실감했다는 증거입니다. 실감하는 세상 문제로 만족하겠다는 야무진 야심가가 된 것입니다.
이 야심이 여러분을 끝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으며 이루어질수록 교만해질 뿐입니다. 교만은 갑질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것을 실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을 먼저 실감함을 통해 야심가가 되려는 마음을 싹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지치고 힘든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세상을 실감하여 채우겠다는 참으로 야무진 야심가가 되어서 지치고 힘들고 기쁨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바람과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